

A Comparis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and Mono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Behaviors

Min-Kyoung Kim*, In-Young Cho**

*Professor, Dep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Gyeonggi-do, Korea

**Professor,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Hyupsung University, Gyeonggi-do,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and monocultural families using data from the 20th (2024)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54,65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after excluding cases with missing values. The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economic status, depression and weekday smartphone use ti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both groups. Subjective stress was identified as an additional associated factor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ereas school level, residential type,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were identified as additional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from monocultural famili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behaviors and to establish information technology-based, tailored educational and health support system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o improve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 **Key words:** Academic achievement,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요 약]

본 연구는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생 54,65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우울감 및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추가적인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학교급, 거주형태, 범불안장애가 추가적인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기술 기반 맞춤형 교육 및 건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학업성취, 다문화가정,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First Author: Min-Kyoung Kim, Corresponding Author: In-Young Cho
 - *Min-Kyoung Kim (kmk20@omail.uhs.ac.kr), Dep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 **In-Young Cho (iyocho@uhs.ac.kr),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Hyupsung University
 - Received: 2026. 07. 24, Revised: 2026. 09. 15, Accepted: 2026. 09. 15.

I. 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전환기이다[1]. 이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업성취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직업 선택 및 성인기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2].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개인의 학습능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개인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사회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3-4]. 특히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교육지원 여건의 차이는 학습기회와 학습환경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교육격차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업성취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한정하기보다 가정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발달과 학업성취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및 또래 관계 등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은 청소년기라는 공통된 발달과정을 경험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적 적응, 부모의 교육지원 여건, 학교 및 또래관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학업 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가정 및 학교환경의 다양한 요인이 학업성취 또는 학업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Kim & Choi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의 변화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의 동기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지원 등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5].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희망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 가구소득, 교사 및 친구의 지지, 학교 생활적응 등이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집단이 처한 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요인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집단의 학업성취 관련 요인을 동일한 자료와 분석 체계에서 비교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련 요인과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건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단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가정·학교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시점의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 요인을 동일한 분석체계에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및 신체활동, 스마트폰 이용과 같은 일상적 건강행태와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고, 집단별로 나타나는 관련 요인의 양상을 탐색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고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ology

1. Study Design and Data Source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제20차(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원시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이차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연구로 수행되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 생활습관 및 사회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조사대상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및 표본가중치(sampling weight)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를 고려하여 모든 분석에서 층화변수, 집락변수 및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부모 출생국 관련 문항을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주요 연구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54,653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1,935명(unweighted N), 일반가정 청소년은 52,718명(unweighted N)이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표본은 층화집락추출을 통해 구성되므로 실제 조사대상자 수와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는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층화변수, 집락변수 및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Table 1의 집단별 사례 수는 실제 분석에 포함된 비가중 표본수(unweighted N)를 함께 제시하였고, 비율 및 통계적 검정은 복합표본설계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Variables

종속변수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생이 인식한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원자료에서는 학업성적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단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 집단과 그 외 집단에서 관련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과 '중상'은 높은 학업성취 집단으로, '중', '중하', '하'를 그 외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분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이분화는 분석과 결과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래의 서열형 자료가 가진 학업성취 수준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분석적 기준이다. 다만 원래의 5단계 응답을 이분화 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 수준에 관한 일부 정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조사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정신건강 및 일상적인 건강행태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건강 요인 및 건강행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거형태를 포함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상'을 '상', '중'은 '중', '중하', '하'는 '하'로 재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

다'와 가족 외(친척집,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등)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 요인으로는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 범불안장애 점수를 포함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낀다'를 '높음', '조금 느낀다'를 '중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낮음'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여부로 정의하였다. 건강행태 요인은 신체활동 실천 여부,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동기, 교사지지, 또래관계, 학교폭토 등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교육환경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가조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이라는 특성상 해당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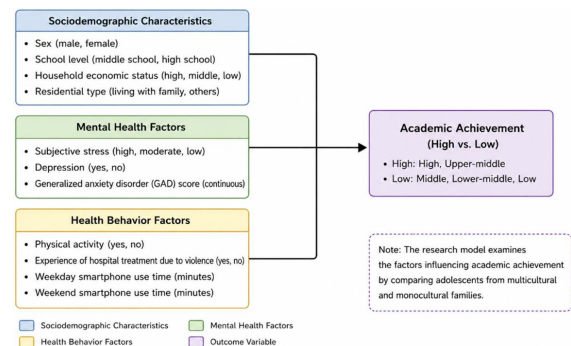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Statistical Analysis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 외 집단으로 구분된 이분형 변수이므로 각 독립변수와 높은 학업성취 가능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복합표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특성 차이는 복합표본 차이분석(χ^2 -test,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취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각각 대상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ox and Snell R^2 및 Nagelkerke R^2 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4.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분석자료에는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대상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III. Results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문화가정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51.2%로 남학생(48.8%)보다 다소 높았으나, 일반가정에서는 남학생이 51.5%로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중학생 비율이 60.8%로 일반가정(52.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고등학생의 비율은 일반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6.609$,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434.231$, $p<.001$). 일반가정은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0%인 반면, 다문화가정은 24.4%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문화가정이 23.3%로 일반가정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형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0.919$, $p<.001$).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일반가정이 95.2%로 다문화가정(92.4%)보다 높았으며, 가족 외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은 다문화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련 변수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분포가 두 집단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은 일반가정 청소년이 더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보다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평일 평균 사용시간은 다문화가정이 305.62분으로 일반가정의 267.31분보다 길었으며, 주말 역시 각각 469.41분과 388.51분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보였다. 반면 범불안장애 평균점수는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Family Type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family(n=1,935)	Monocultural family(n=52,718)	χ^2/t
		% M±SD	% M±SD	
Sex	Boys	48.8	51.5	5.477*
	Girls	51.2	48.5	
School	Middle	60.8	52.9	46.609***
	High	39.2	47.1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24.4	43.0	434.231***
	Middle	52.2	46.3	
	Low	23.3	10.7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92.4	95.2	30.919***
	Others	7.6	4.8	
Subjective stress	high	40.6	42.2	2.921
	Middle	42.5	42.0	
	Low	17.0	15.8	
Depression	Yes	28.3	27.7	.328
	No	71.7	72.3	
Physical activity	Yes	66.6	70.2	11.302***
	No	33.4	29.8	
Smartphone usage time	Weekdays	305.62±182.4	267.31±166.2	-9.012***
	Weekend	469.41±252.4	388.51±221.8	-13.765***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4.38±4.67	4.45±4.74	.617

Notes * $p<.05$ ** $p<.01$ *** $p<.00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는 경제적 수준,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학교급, 경제수준, 가구형태, 우울감, 신체활동 및 범불안장애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과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을 검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집단 간 관련성의 통계적 차이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는 특히 경제적 수준 '하'를 기준으로 '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중'은 유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감 역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또한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특히 경제적 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일관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정신건강 변수인 우울감 스트레스 역시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역시 양 집단 모두 유의한 변수로 확

인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이 학업성취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family			Monocultural family		
		OR	95%CI	p	OR	95%CI	p
Sex	Boys	1			1		
	Girls	1.086	.862-1.369	.482	1.012	.971-1.054	.581
School	Middle	1			1		
	High	1.288	1.014-1.637	.038	1.750	1.680-1.824	<.001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			1		
	Middle	.419	.303-.580	<.001	.278	.258-.300	<.001
	Low	.972	.722-1.307	.849	.755	.700-.815	<.001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1.031	.639-1.665	.901	1.243	1.121-1.379	<.001
	Others	1			1		
Subjective stress	high	.523	.359-.762	<.001	.926	.866-.990	.025
	Middle	.675	.481-.946	.023	.981	.923-1.041	.524
	No	1			1		
Depression	Yes	.664	.493-.893	.007	.771	.733-.812	<.001
	No	1			1		
Physical activity	Yes	.994	.785-1.258	.958	1.078	1.032-1.127	<.001
	No	1			1		
Smartphone usage time	Weekdays	1.002	1.001-1.003	<.001	1.002	1.001-1.002	<.001
	Weekend	1.000	.999-1.001	.019	1.001	1.001-1.002	<.001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006	.120	.958	.986	.981-.992	<.001
Cox와 Snell의 R ²		.123					
Nagelkerke R ²		.16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수준, 우울감 및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학교급, 거주형태 및 범불안장애가 유의한으로 확인되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 영향요인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다문화가정에서는 ‘중’과 ‘하’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일반가정에서는 ‘중’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과 학업성취 간 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단순한 선형적 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학습환경, 교육기회 및 교육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7].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비율이 일반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점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더욱 민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이 단순히 학습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교육지원 접근성 향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 요인 역시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타나냈다. 우울감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 함께 언어 및 문화적 적응, 또래 및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환경적 요구를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가족과 교사 및 또래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건강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학업 경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학교생활 적응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은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력 증진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인지기능 향상 및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학습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이 아니라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두 집단 모두에서 평일 사용시간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자료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높은 학업성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관련성이 관찰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 정보검색, 여가 및 사회관계 등 스마트폰 이용목적을 구분하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불안장애가 다문화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일반가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 집단의 표본크기와 사회

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직접 검증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변수가 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해당 변수의 관련성이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 결과는 집단별 관련 요인의 양상을 비교하는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유형과 주요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 검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다 엄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 대표성을 갖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을 동일한 분석모형에서 직접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 집단 또는 일부 변수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모든 변수는 자기보고식 설명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억오차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업지원 정도, 학교환경, 교사 요인 등과 같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넷째, 학업성취를 자기보고식 5단계 응답에서 이분형 변수로 재분류하였으므로 학업성취 수준의 세부적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과 함께 가정 및 학교환경을 포함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 관련 요인은 향후 청소년의 교육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축적되는 학습·건강 관련 자료와 연계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 요

인을 동일한 분석체계에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우울감,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부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의 관련성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개인의 학습능력이나 학습행동만으로 설명하기 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신건강, 건강행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요인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은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각 집단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파악하여 학습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원과 함께 학교생활 및 심리적 적응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의 상담 및 학습지원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접근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교육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Hyup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5(2025-0040)

REFERENCES

- [1] Kwon, A. R.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omatic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33, No. 2, pp. 23-51, 2025.
- [2] Kim, S. S., Joh, M. S. "The Factor of Effect on Growth of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 : The Use of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3, pp. 5-29, 2007.
- [3] El-Sheikh, M., Bagley, E. J., Keiley, M., Elmore-Staton, L., Chen, E., and Buckhalt, J. A. "Economic adversity and children's sleep problems: Multiple indicators and moderation of effects," *Health*

Psychology, Vol. 32, No. 8, pp. 849-859, 2013. DOI: 10.1037/a0030413

- [4] Lee, H. J., Si, E. A.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and Smoking Dual Use Experience on Culturally Diverse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s: Using Data from the 15~17th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31, No. 4, pp. 415-426, 2022. DOI: 10.12934/jkpmhn.2022.31.4.415
- [5] Kim, W. G., Choi, P. S.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16, No. 4, pp. 1-22, 2023. DOI : 10.14328/MES.2023.12.31.1
- [6] Park, J. W., Oh, S. B.,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sonal, Family, School, and Multicultural Factor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Immigrant Student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 15, No. 3, pp. 37-59, 2025. DOI : 10.35281/cms.2025.08.15.3.37
- [7] Lim, S. H., Oh, S. B. "A comparison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between income changes and academic achievement after COVID-19 pandemic,"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41, No. 3, pp. 01-25, 2023. DOI:10.22327/kei.2023.41.3.001
- [8] Chang, Y. J., "Multicultural Adolescents' Profiles of Social Support and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Global Studies Education, Vpl. 11. No. 4, pp. 26-51, 2019. DOI : 10.19037/agse.11.4.02

Authors



Min-Kyoung Kim received B.S, M.S. and dr. Graduate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2, 2006 and 2019 with a medical degree in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cs and Management.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at Hyupsung University, gyeonggi-do, Korea, in 2020.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healthcare, health promo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n-Young Cho received her B.S. degree from Hyupsung University in 2002, and her M.S. and Ph.D. degrees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2004 and 2009, respectivel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a

specialization in Finance. Dr. Ch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and Insurance at Hyupsung University, Gyeonggi-do, Korea, in 2021.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inance and Insurance, Hyupsung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finance, youth education, and ESG.